

市指定文化財(建造物)
시 지정문화재(건조물)
치토세고몬(千歳御門 우즈미몬(埋門))

도야마번 10대 번주 마에다 도시야스(前田利保)가 은신처로 사용했던 치토세고텐 (千歳御殿 : 현재의 사쿠라기초)의 정문은 1849년에 지어졌습니다. 당시 정문은 아래 그림처럼 조시오도리(城址大通)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.

느티나무를 활용한 소케야키즈쿠리 구조의 산겐야쿠이몬(三間薬医門)은 기와 지붕으로, 그 모양이 마치 책을 펼쳐 반대로 놓은 듯한 기리즈마스쿠리 혼가와라부키입니다. 이 건물의 길이는 6미터, 폭은 1.9미터입니다. 같은 건축 양식의 성문으로는 「도다이(東大)의 아카몬(赤門)」으로 잘 알려진 구가가야시키 고슈덴몬(旧加賀屋敷御守殿門)(국가 중요문화재·도쿄도 분쿄구) 등이 있으며, 이 성문은 현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에도 시대 유산으로 평가됩니다.

이 건물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 아카소후케(赤祖父家)에서 옮겨졌으며, 이후 소유자로부터 기증을 받아 2006년부터 20년 동안(2008년까지) 도야마시의 조시공원 내로 이전되었습니다. 이 건물은 도야마성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치토세고텐 창건 당시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에도 시대 후기의 고텐 정문 양식과 당시의 의상 및 건축 기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, 2008년 10월 29일에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또한, 도야마성이나 치토세고텐에 관한 전시는 향토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